

스펙 쌓으려면 여름캠프가 유리

평키지 샤마의 대입가이드



시니어 어드바이저
어드미션 매스터즈

경쟁력 있는 여름 캠프들은 대부분 SAT나 ACT 성적을 요구한다. 때문에 지원을 앞두고 제출해야 할 성적표 등이 준비가 되지 않아 당황해 하는 경우를 본다.

이름난 여름방학 캠프는 이제 서서히 그 마감이 끝나가고 있다. ROSS나 PROMYS 같은 프로그램은 수학 문제를 풀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지원자들의 애를 태우기도 한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학생들도 집을 떠나 여름 캠프에 참가하면 어른스러워지고 의젓해진다. 다양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과 만나 생활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얻은 경험들이 자녀를 더욱 독립적이고 성숙시키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실로 많은 학생에게 매년 여름방학을 기해 부모와 집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법도 배우고 또한 대입 지원시 훌륭한 스펙으로 쓸 수 있는 캠프에 다녀와 두 마리 토끼를 잡기를 추천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는 비싼



성적 보충할 땐 과목별 수업 필요

지금부터 계획 세워야 알차게 보내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보낼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며 고민한다. 최고의 스펙을 쌓는 것이 꼭 돈이 많아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름방학 동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로도 최고의 스펙을 쌓을 수 있다.

대입 지원을 유리하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고 자원봉사나 인턴십은 지원자가 훗날 택하게 될 직업에 관한 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멀리 떠나지 않고도 홈 타운에 머무르며 아직 끝내지 못한 표준고사를 준비하고, 자신이 해오던 여러 가지 스포츠, 음악, 미술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주위를 둘러보면 틈에이저들을 위한 일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여름방학 계획은 자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획돼야 한다. 예를 들면 학기 성적이 저조한 학생이라면 일단 방학 동안 보충수업을 하거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과목 중에 자신있는 과목을 택하여 내신 성적을 반드시 올리는 것이 좋겠다. 공부와 더불어 봉사활동과 과외활동을 지속하라.

만약 내신 성적에 자신이 있다면 여름 방학 동안 자신의 전공하고자 하는 영역에 좀 더 경험을 쌓기 위해 여름 캠프나 인턴십, 혹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